

# MEETING

## 이성배



83학번 이성배 선배님은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학사, 석사를 취득한 후, 광장건축과 시건축에서 경험을 쌓았다. 1993년부터 시건축에서 근무하다 1997년 ‘(주)건축사사무소 다솔’을 개소하여 현재까지 건축을 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와 서울 특별시 건축사회 활동을 통해 건축계에 공헌하고 현재, 송파구건축사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 STORY

초. 중학교땐 기계에 관심이 많아서 집에 있던 축음기, 카메라, 라디오, 벽시계를 분해했다가 원상복구를 못하고 망가뜨려서 많이 혼났어요.(웃음)

아! 그리고, 초등학교 때 시골에 살던 집을 새로 짓게 되었는데 소달구지 타고 냇가에서 골재 나르던 기억, 달구질, 회벽 만들기 위해 해초 끓이던 냄새, 함석 접기와 납땀 등 온갖 신기한 것 투성이였지요. 그리고 또 한번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읍내에 양옥집을 짓게 되었는데 자주 못 가는 사이에, 업자 마음대로 지으면서 화장실을 너무 작게 쌓아 놔더라구요. 몰래 가서 아버지랑 돌이서

함마로 시원하게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오리발 내밀었죠.(웃음)

막상 기계과를 갈까 건축과를 갈까 고민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봐왔던 것들이 선택에 작용했고 또, 동경대 유학 중이던 삼촌 왈 '캠퍼스 내에서 제일 잘나가는 놈들이 건축과야~!!' 이 말에 솔깃하기도 해서 건축학과를 선택했고요. 학교의 선택은 동문을 만들겠다는 아버지의 의지였어요.(웃음)



## 기공건축

## 중앙대학원졸업

## 아람광장

### 건축학과 선택

2학년에 복학 후 손세관교수님께 도학과 주택설계를 지도 받고, 여름방학 실습할 곳을 추천 받은 곳이 기공건축이었어요. 글씨연습이 기억나고 그 당시 혜화동에 주택설계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50분의 1 모형을 만들면서, 지붕의 쇠골까지 한땀한땀듬어 붙이고 파고라까지 발사로 정교하게 만들어서 칭찬을 많이 받았고 현장에서 이 모형을 보고 공사했다면서 공사에 큰 도움이 됐었다고 했어요.(웃음) 역시, 칭찬은 용기를 불러 넣기에 충분했어요.

대학원 졸업 무렵, 선배님의 소개로 면접을 봤는데, 다음날부터 출근해서 2달간 현상설계로 집에는 속옷만 갈아입으러만 갔어요. 동송동사무소에서 입사 동기 동료들은 마로니에공원과 대학로의 낭만은 1도 없이 설계와 청춘을 바꿨지요. 주로 마스터플랜 보고서 작업을 다수 진행했는데, 자료수집 분석, 현장답사, 문헌, 서적탐구는 기본이죠. 저에게 동송동시기는 프로젝트 수행방법에 대한 배움의 시간이었어요.

# STORY

새로움에 목말라하던 중에, 평소 따랐던 한철수 선배님의 콜이 있었고 기꺼이 옮기게 되었어요. 이전 사무실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는데, 소장님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디자인사무소를 다니다가 와서인지 아메리칸 스탠다드 자체였어요. 와~ 아나로그에서 디지털로, 감성에서 이성으로, 공과 사가 분명하고 개인의 능력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곳. 50여명이 있었는데 절반은 건축설계직이고 나머지 절반은 인테리어설계와 시공을 겸했어요.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게 고통이었어요. 디테일이 중요했고 남다른 성과물 창출이 끊임없이 요구되었지요. 사무소는 실제로 완성도 높은 고가의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했고 건축상도 많이 받았어요. '좋은 것을 알아야 좋게 만들 수 있고, 될 때까지 해야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다솔건축

## 시건축

1997년 봄 관광개발사업을 하는 형님의 반강요로 느닷없이 시작했다가, IMF로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시행사는 영 아니고, 큰회사 영업도 적성에 안 맞고, 내가 할 줄 아는 밀착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은 개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처음으로 고등학교 은사님의 상가주택을 열심히 했더랬지요. 그 후 우연한 인연으로 강남역 코너 13번 출구에 15층 규모의 업무시설설계를 시작으로 강남역세권 일대에 10여개의 건물 설계를 하며 신나고 즐겁게

일했어요. 지금은 현실설계도 해보고 있는데 프로세스가 민간사업과는 많이 달라요.

그러던 중 2014년 말에 회사지명원을 A3 한장에 담아봤는데, 자찬이지만 성과물이 많았어요. 성과물 만큼이나 나 자신에게도 위로해야겠다는 생각이 후속 들어왔어요. 무엇으로 위로할까 살피다가 건축기행이라고 믿고 2015년부터 캐나다, 일본, 베니스, 비엔나, 스페인, 포르투갈, 베트남,

시에틀, 슬로바키아, 홍콩, 마카오, 태국, 베이징, 블라디보스톡, 2022년에는 두바이, 필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를 다녀왔어요.

아직도 가보고 싶은 곳이 너무 많고, 건축기행은 준비가 필요하고 피드백도 꼭 필요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때로는 낯선 곳에서 이방인이 되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돌아온다는 보장 하에~(웃음)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송파구건축사회 회장

설계사무소 개업 당시는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건축사회, 지역건축사회 가입이 의무였어요. 궁금중에 협회활동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노망들이 뭐 하나? 불평했는데 막상 활동을 해보니, 자기 시간과 돈을 써가며 하는 순전한 봉사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구요? '사회로부터 설계업이 존중받게 하고 싶어서'합니다. 넓게 보면 그렇고 결국은 나와 업계를 위하는게 되겠죠!

송파구에서 개업을 했고, 송파구를 중심으로 선 후배 동료들과 긴밀히 활동해오다가 2022년 2월부터 12대 송파구건축사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속 건축사들과 설계역량을 높이고 동료 건축사들과 협업하며 건축사의 삶이 좀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동문 선 후배님들도 협회활동에 관심과 참여로 건축사가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삶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PROJECT 1

### HARLEY - DAVIDSON 할리 데이비드슨 용인본사



할리의 질주하는 이미지를 담기 위해 1, 2층의 매스 분절로 세장함을 유도하고 2층 매스를 더 길게하여 속도감을 표현 하고자 했으며, 광야에 우뚝 솟은 듯한 계단탑은 자유를 지향하는 할리의 높은 정신세계를 담고자 했다. 이곳 용인본사는 국내 할리의 메카로서 단지내 루프형 주행교육은 물론 이론교육을 겸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갖추고 있다.







<2층 내부>

## 전시 및 판매동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384-12  
 대지면적 3306㎡  
 건물규모 지상 2층, 지하1층, 옥탑  
 건축면적 641.63㎡  
 연면적 1452.15㎡  
 건폐율 19.41%  
 용적률 29.81%

제1동은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은 피복과 바이크 악세서리를 판매하며 2층은 바이크를 전시 및 판매하는 곳이다. 고속도로에 면한 전시 판매동은 현위를 방지하여 내부 전시물이 잘 보이도록 1층과 2층의 입면각도를 조절하고 디자인에 접목했다.



<1층 내부>



## 바이크 조립, 교육, 정비동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379-5  
 대지면적 4620㎡  
 건물규모 지상 2층, 옥탑  
 건축면적 915.85㎡  
 연면적 1342.02㎡  
 건폐율 19.82%  
 용적률 29.05%

정비직원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바이크 조립, 정비, 직원교육, 세미나 및 집회를 할 수 있는 건물이다.

경사지형에 전 후 지면 진입이 가능한 계획으로, 지하층에는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넓은 D.A로 채광과 통풍을 유도하였고, 1층 전면 일부를 오픈한 볼룸은 HOG 이벤트를 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제공되고 있다.

옥상은 풋살장을 만들어 직원들의 체육활동에 기여 하였다.







<이벤트 홀>



<조립 및 정비실>



<세미나실>





<조감전경(야경)>

### 업무 지원, 관리, 복지동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379-1  
 대지면적 3306㎡  
 건물규모 지상 2층, 옥탑  
 건축면적 659.76㎡  
 연면적 1091.67㎡  
 건폐율 19.96%  
 용적률 3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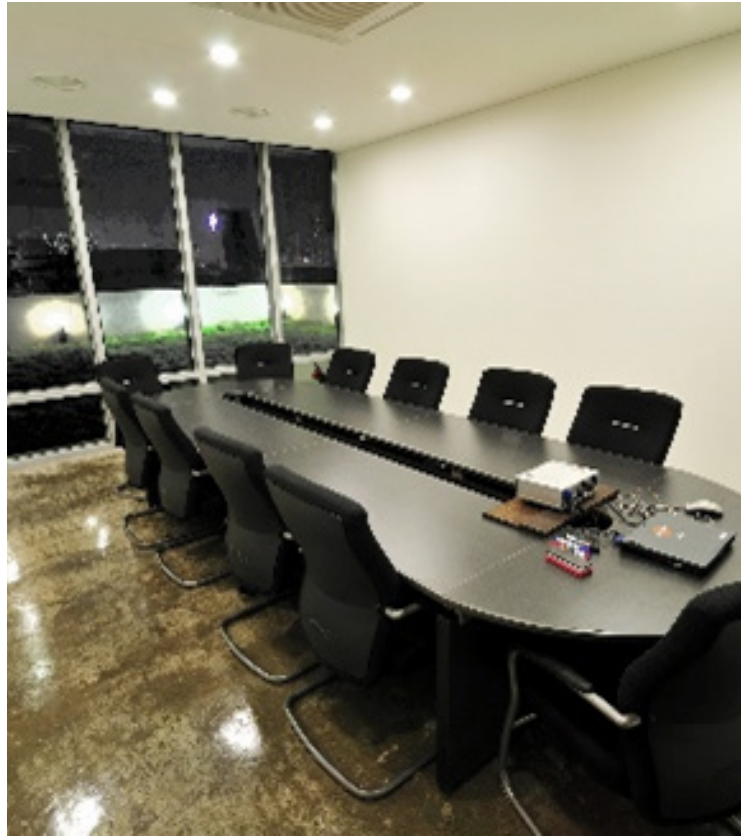
<입면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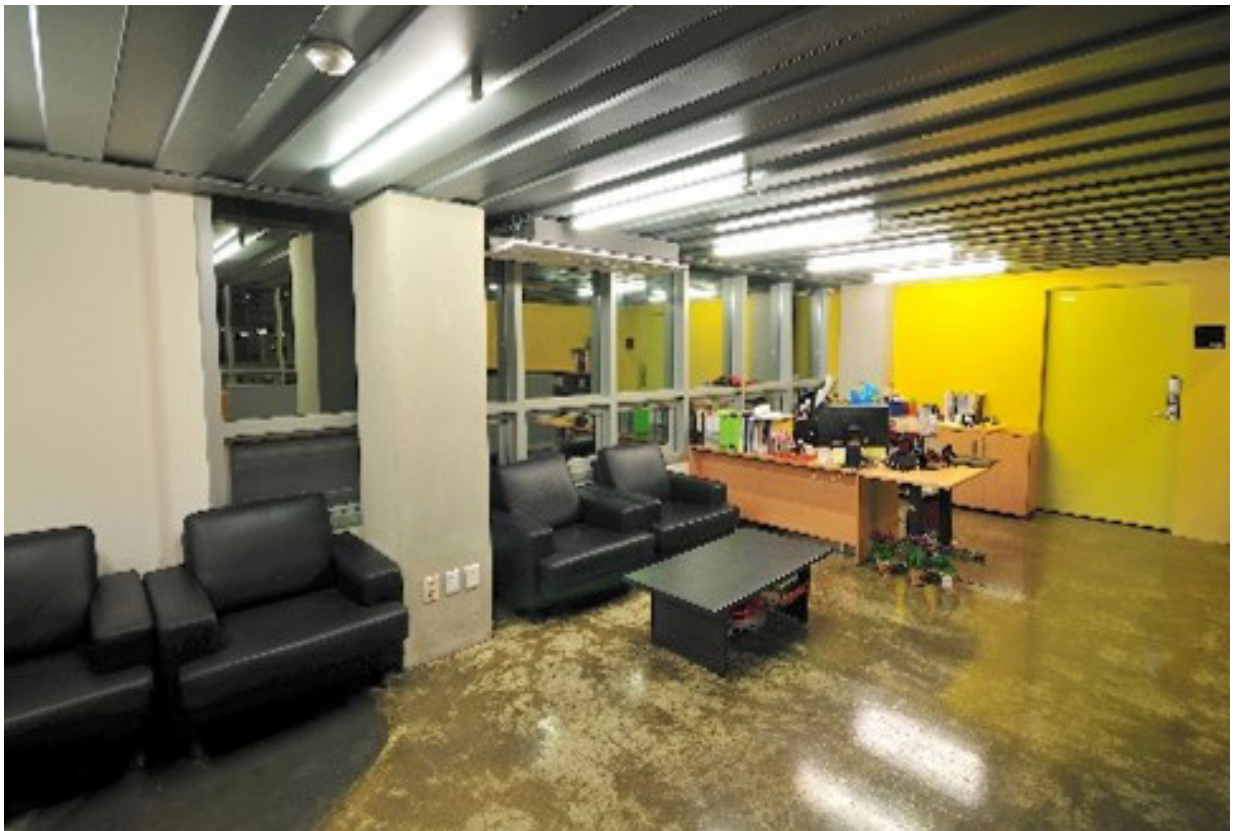
경부선으로부터 가장 멀고 높은 곳에 위치한 업무지원, 복지 및 관리를 위한 건물로서 경부고속도로에서 보여야 하며, 앞의 정비동과 전시동을 조망할 수 있어야 하고 아이들의 정서를 위해 닭과 토끼를 기를 수 있는 외부 공간이 필요하다.

많은 프로그램을 소화하기 위해, 내외부가 유기적으로 잘 연계된 '르'자 한옥을 관찰하여 실배치, 동선, 기후조절을 차용하여 요구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소화한 계획안을 도출하였다.

1층에는 직원식당, 어린이 놀이방, 헬스장을 배치하였으며, 2층은 비즈니스 공간으로 중정과 테라스, 높은 천장고를 만들어 입체적 사무공간에서 밖을 충분히 조망할 수 있게 하였다.



<회의실>  
<대표 이사방 대기실>





## PROJECT 2 두에빌딩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43(77-15)  
대지면적 291㎡  
건물규모 지상14층, 지하2층, 옥탑1층  
건축면적 172.71㎡  
연면적 2493.57㎡  
건폐율 59.3505%  
용적률 743.079%







<로우 앵글샷>



<출입구>

본 건물은 영동대로와 봉은사가 교차하는 코엑스사거리 봉은사역 1번 출구 앞에 위치하고 있어 너무나 잘 보이는 입지이다.

식견 높은 클라이언트와 여러차례 숙고 끝에, 어눌하지도 지나치지도 않으면서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유니크한 건축물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설정을 하게 되었다.

자연, 가로수 버즘나무를 형상화 해보자는 방향설정을 시작으로, 상층부는 나뭇가지 위에 짓는 새의 동지를 형상화하여 오너만의 독립공간을 제공하였고, 중층부는 잔가지와 잎파리 사이를 스치는 바람결을 연상하였으며, 저층부는 크고 작은 빛이 드는 나뭇가지 사이 공간을 형상화하여 이중 외피로 처리하였다.

건물은 지하 3층 지상14층으로, 지하는 설비층이고, 1~3층에는 별도 EV를 설치하여 커피숍이 입점했으며, 4~14층은 업무시설이다.





## PROJECT 3

### 하갈동 주택 '코트야드 블루' 201호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73-15  
 대지면적 446㎡  
 건물규모 지상2층 지하1층  
 건축면적 88.7㎡  
 연면적 351.09㎡  
 건폐율 19.89%  
 용적률 37.55%

별이 잘 드는 남향 반이, 경사는 조금 높다 싶은 야산에 집짓기가 시작되었다. 경사극복 진입도로 계획과 대지레벨설정을 하고 조심스럽게 한 채 한 채 앉혀 본다. 여러번의 시행착오로, 처음에는 27채를 계획했다가 최종 13채로 확정하고 최적의 맞춤주택을 짓기로 정했다.

201호는 단지 내에서 가장 먼저 지은 건축물로 선 시공 후 매각 사례로, 설계자의 의도가 가장 잘 반영된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침실>



<2층 알코브>

건축물의 디자인 개념은 미니멀을 추구하며 수평적 요소로 안정감과 면의 입체적 조합으로 볼륨감을 나타내고자 했다.

도로 진입부의 지하층에 앞마당과 뒤쪽 썬큰을 만들어 지하의 실내공간에 쾌적성을 확보하고, 가족의 중심공간인 1층에는 LDK타입으로 아일랜드 주방의 활용도를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옥외 BBQ와도 편리하게 연계시켰다. 2층은 MBR, 드레스룸, 알코브, 욕실, 침실2, 발코니를 계획하였다.

각 세대는 지그재그 배치로 전세대 4계절 청명산 조망은 물론, 충분한 채광을 위한 남향의 넓은 창문배치로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코트야드 블루'는 전원형 도시주택으로 사계절 자연의 변화를 조망할 수 있는 실의 배치와 자연과 맞닿은 전이 마당이 있는 집이다. 높은 천정과 넓은 창의 경쾌한 실내에 화이트 마감의 깔끔하고 편안한 분위기 연출로 클라이언트 요구에 맞춤 제공하고 있다.





<테라스>

<응접실 바 전경>



이 주택은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가 가능한 공간구성으로, 지하층에 응접실, 침실, 욕실, 다용도, 헬스실을 갖추고, 1층은 거실, 식당, 주방, 다용도실, 게스트 룸, 앞 마당, BBQ가 있으며, 2층은 가족실, 침실1, 침실2, 욕실이 있다.